

애도 주제의 활용 양상과 그 변천 소고*

— 南宋 哀悼詩를 중심으로 —

이 수 정*

<目次>

- | | |
|-----------------|------------------|
| I. 서론 | IV. 관습의 재구성(再構成) |
| II. 슬픔 공유의 보편화 | V. 결론 |
| III. 감정 대응의 다양화 | |

I. 서론

애도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상실의 대처로서 인간 사회를 특징 짓는 고유의 행위로 존속해왔다. 애도와 슬픔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전하는 고대 중국의 자료들은 애도 행위의 초점이 결코 슬픔 표출이라는 단편적인 범주에만 포함되지 않음을 말해주며, 이는 곧 애도를 위시한 관련 주제의 글쓰기가 시대별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의 추세에 놓였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시경(詩經)》에 수록된 애도 관련 작품인 〈이지승주(二子乘舟)〉, 〈황조(黃鳥)〉 등은 본받을만한 특정 인물의 행적을 재현함으로써 교훈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는 고지책(告地策) 등 매장용 문서를 작성하여 망자의 안락한 사후 삶을 기원하는 진혼(鎮魂)의 주제가 중심을 이룬다. 또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3379).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대(周代)를 기점으로 시호(諡號)의 주칭이나 행적 칭송(稱頌)의 목적 아래 문인들에 의한 뇌문(誄文), 애사(哀辭), 조문(弔文)과 같은 애제류(哀祭類) 산문 창작이 보편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애도 글쓰기 양식의 다양화는 결국 중국에서의 애도 역사가 유구하며 그에 따른 시대별 애도의 목적과 주제의 활용 양상이 단일적인 발전 구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반증한다.

이례의 한 방편으로 애도와 애제류 산문 창작 간의 긴밀성이 강화됨에 따라 서정 기반의 애도시 창작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상장례의 엄격한 규범과 기준이 마련되었던 시대에는 관습에 근거한 창작이 철저히 요구되었고, 애도와 서정 기반 글쓰기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를 통한 애도 행위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실제로 현전하는 수대(隋代) 이전 애도시는 백 여수도 채 되지 않으며,¹⁾ 내용 상당수가 공적(公的) 인물의 생전 행적을 칭송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애제류 산문 체제를 수용하는 관습화한 특징을 보인다.

애도시의 양적 발전은 당대(唐代)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시 창작의 발전과 더불어 안사의 난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 상실은 자연스레 죽음 담론의 장을 형성하였고, 공적 영역에 치우쳤던 애도 글쓰기도 시 문학의 성황과 맞물리면서 개인 서정을 대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전당시(全唐詩)》에는 약 670수의 애도시가 수록되어 있다. 다른 시가 주제에 비해 여전히 소수를 차지하지만, 기존의 애도시 창작 현황을 고려할 때 중당(中唐)을 기점으로 단기간에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애도시는 사적 감정의 노출 폭을 확장하면서 애도 주제의 글쓰기 목적을 다양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송대에는 약 4,300수의 애도시가 창작되었다.²⁾ 각각 북송 1,140여 수, 남송 3,200여 수이다. 이러한 양적 증가 추세의 배경에는 문치(文治)로 인

1) 邊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中華書局, 1983에 수록된 작품 중 애도시를 선별한 것이다.

2) 《전송시(全宋詩)》에 수록된 작품을 직접 분류하여 도출한 수이다.

한 송대 특유의 사회적 요인도 작용했겠으나, 무엇보다 애도 주제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죽음 담론의 일상화 및 보편화도 양질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송대 애도시는 애도 주제의 활용 면에서 전후기로 극명히 구분된다. 북송의 경우 기존 질서 재배치의 명목 아래 상당히 제한적인 감정 표출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군을 중심으로 집단 애도가 이루어지거나 특정 문인의 교훈적인 과거 행적을 강조하는 등 애도의 주제가 국가의 사회·정치 경영에 관여하는 공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그와 달리 남송은 애도 주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서정에 근거한 자율적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애도 대상의 선별부터 감정 표출의 정도와 내용 구성 등 제 면에서 전대(前代)와는 다른 주제 활용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시대별 차이는 애도의 목적이 남송에 이르러 변화되었음을 말해주며, 무엇보다 애도 주제의 글쓰기를 관습 문학의 한 부분으로만 한정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본 논문은 고대 애도시사를 구축하려는 목적 아래 남송 애도시와 기존 애도시 간의 변별점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남송 애도시를 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분량이 방대한 만큼 대표 작가의 작품을 선별하였다.³⁾ 이는 각각 여본중(呂本中, 1084~1166) 10수, 증기(曾幾, 1084~1166) 16수, 왕십봉(王十朋, 1112~1171) 61수, 한원길(韓元吉, 1118~1187) 45수, 주필대(周必大, 1126~1204) 52수, 유양능(喻良能, 1120~?) 21수, 주부(周孚, 1135~1177) 16수, 여조겸(呂祖謙, 1137~1181) 27수, 누약(樓鑰, 1137~1213) 172수, 유재(劉宰, 1167~1240) 52수, 위료옹(魏了翁, 1178~1237) 115수, 유극장(劉克庄, 1187~1269) 215수이다.

3) 대표 작가 선별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첫째, 작품 수. 둘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작품 수의 경우 최소 15수 이상의 애도시를 창작한 작가를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작품 수는 적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작가의 작품은 별도로 선별하여 연구 대상에 수록하였다.

남송 애도시는 슬픔 공유의 문화가 보편화하면서 기존에 언급되지 못했던 대상이 출현하거나 대리창작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애도 주제와의 친소 정도에 따라 시제(詩題)와 내용 구성 방식에 의식적으로 차이를 두기도 한다. 또한 관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칭송의 방식, 이를테면 무엇을 칭송하고 이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 등의 처리에도 변별점이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슬픔 공유의 보편화’, ‘감정 대응의 다양화’, ‘관습의 재구성(再構成)’의 세 층위로 나누어 애도 주제의 활용 양상과 그 변천의 일면을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남송 애도시를 중심으로 애도 주제의 활용 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남송 애도시 고유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더 본질적으로는 애도 주제의 글쓰기가 줄곧 변화의 전진 과정에 놓였음을 증명하려는 데 있다. 이는 당송 애제류 산문과의 비교 연구 및 고대 중국의 애도시사(哀悼詩史)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발판이자 시사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슬픔 공유의 보편화

현전하는 많은 글쓰기 자료들이 고대 중국의 애도 다양성을 보증해주는 한편, 공자(孔子)의 “삶도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不知生, 焉知死).” 등의 죽음 관련 문구는 유가 이념의 지속과 더불어 그 힘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죽음 담론의 출현을 저애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죽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탐색은 엄숙한 의례와 관련 규범의 실천으로 대체 되었고, 타인의 죽음은 슬픔을 유발하는 인간 일반의 자연적인 현상이되 교훈적이고 공익적인 행적이 뒷받침되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왕족은 물론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영위했던 중심부 인물이 애도의 주요 반열에 올랐으며, 형식과 절차에 따른 관습적인 창작물이 장례에

수반되었다. 슬픔은 사회적으로 소비되었으며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생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위진남북조에 이르러 애도 대상이 작가의 주변 인물로 확장되면서 애도 주체와 대상 간의 사적인 일화가 슬픔 유발의 전제로 제시되기 시작했고, 특히 서진(西晉) 반악(潘岳)이 죽은 아내를 애도한 〈도망시(悼亡詩)〉 三首는 문인사회에 만연했던 불언내(不言內) 신조에서 벗어난 과격적 사례로서 사적 대상의 죽음이 공개적으로 애도 될 수 있는 출로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슬픔을 공유하는 문화의 형성은 당대(唐代)부터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당대에는 죽음에 대한 나름의 인문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시회(詩會) 등을 통해 문인 간 슬픔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하게 된다.⁴⁾ 평소 절친했던 인물, 가족 등의 죽음으로 유발된 슬픔을 글쓰기를 통해 표출하는 것이 일상화하였으며, 때에 따라 동일인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작품을 창작하는 반복적인 애도 양상도 보인다. 그러나 작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문인 중심으로 한정되었으며 특정 인물에 의해 다수의 작품이 창작되는 등 다소 제한적이다.

북송 시대에도 슬픔을 공유하는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긴 했으나 전대에 비해 오히려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발전 추세를 보인다. 애도 주제의 시적 활용을 재정립하려는 목적 아래 애도 대상의 확장 및 창작 규율의 이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된다. 주변 인물과 가족 등 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애도시 창작 사례가 대폭 축소되면서도, 같은 이념을 지닌 집단 내 결속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의 집단중심적인 슬픔 공유는 오히려 활성화되는 독특한 발전 형태를 보인다. 즉 특정한 동일인에 대한 창작은 주류를 이루지만 사적 관계에 놓인 일상적 인물을 애도한 사례는 감소했으며, 자녀나 친척을 애도한 작품이 소수 존재하지만, 아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슬픔을 공유하는 문화는 남송 시대에 보편화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

4) 이수정, 〈사교시를 통한 唐代 문인들의 슬픔 공유에 대한 고찰—白居易, 劉禹錫, 元稹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79집, 2022 참조.

는 근거는 첫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창작의 감소, 둘째, 주변 인물⁵⁾의 대두, 셋째, 대리창작 등을 들 수 있다. 슬픔 공유의 보편화는 결국 애도 주제 글쓰기의 보편화와 직결되는 면에서 그 변화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집단 창작이 북송 애도시에서 자주 발견됐던 것과 달리, 남송은 동일 인물이 다수에 의해 집중적으로 창작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 비교를 위해 몇몇 사례를 예시한 아래의 <표 1>을 살펴보자.

<표 1> 동일인에 대한 애도시 창작 현황

애도 대상	작가 ⁶⁾		시제(詩題)
李光 (1078~1159)	曾 幾(1084~1166)	1	挽李泰發參政三首
	王十朋(1112~1171)	2	故參政李公挽詞三首
	劉克莊(1187~1269)	3	挽李尚書二首
陳康伯 (1097~1165)	曾 幾(1084~1166)	1	挽陳丞相
	韓元吉(1118~1187)	2	故贈太師丞相文恭陳公挽詞三首
向子諲 (1085~1152)	曾 幾(1084~1166)	1	挽向伯恭侍郎三首
	呂祖謙(1137~1181)	2	向運使挽章
張庭堅 (1074~1131)	王十朋(1112~1171)	1	張廷直挽詞
	魏了翁(1178~1269)	2	張隱君挽詩
汪應辰 (1118~1176)	韓元吉(1118~1187)	1	故端明尚書汪公挽詞二首
	周必大(1126~1204)	2	端明尚書汪聖錫挽詞二首
	樓 鑰(1137~1213)	3	端明殿學士汪公挽詞三首
張栻 (1133~1180)	周必大(1126~1204)	1	張侍制挽詞
	樓 鑰(1137~1213)	2	張欽州挽詞
王十朋 (1112~1171)	呂祖謙(1137~1181)	1	王龜齡詹事挽章二首
	樓 鑰(1137~1213)	2	王忠文公挽詞

5) 주변 인물은 애도 주체인 작가와 사적인 친분을 맺고 있는 대상을 말한다. 가족, 친척, 첩, 절친한 친구 등 작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던 대상이 중심이 된다.

6) '애도 대상'에 대해 애도시를 지은 작가를 말한다.

애도 대상	작가		시제(詩題)
陸遊 (1125~1210)	樓 鑰(1137~1213)	1	陸參議挽詞
	劉克莊(1187~1269)	2	挽南雄林使君
葉適 (1150~1223)	劉 宰(1167~1240)	1	挽葉水心侍郎三首
	劉克莊(1187~1269)	2	挽水心先生二首
袁樞 (1131~1205)	魏了翁(1178~1269)	1	袁侍郎挽詩
	劉克莊(1187~1269)	2	挽袁侍郎二首
陳宓 (?~1227)	魏了翁(1178~1269)	1	陳寺丞挽詩
	劉克莊(1187~1269)	2	挽陳師複寺丞二首

북송은 동일인에 대한 애도시가 적게는 3수, 많게는 6수까지 창작되었던 것과 달리, 남송은 이광(李光)을 제외하면 2수에 그치며 집단으로 애도한 대상의 수도 11명에 그친다.⁷⁾ 북송과 남송 각각의 전체 작가 수와 작품 수를 고려할 때 <표 1>은 집단 창작 사례가 남송에 이르러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집단 창작의 감소는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먼저 애도시의 글쓰기 주제가 더 이상 특정인의 행적을 대변하기 위한 공적 기록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시를 제외한 기타 애제류 산문의 지속적인 창작 여파도 고려의 대상이 되겠으나 결과적으로 전대(前代)의 창작과 방향성을 달리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여러 애도 문학 양식 중 애도시의 역할이 확정되어가는 한 면을 대변한다. 과거 서정 기반의 시와 애도 주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애도시사에서의 그 위치가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었다. 특정 인물의 행적을 선양하는 데 중점을 둔 작품은 점차 서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창작되어 가는데, 그렇다면 남송 애도시의 주요 창작 동인이 슬픔을 표현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편 주변 인물이 대두된 현황은 시적 대상의 신분 조사를 통해 증명된

7) 이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도출한 수치이다.

다. 제한된 인물을 중심으로 애도 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남송 애도시는 사적인 관계에 따른 인물들, 예컨대 일상을 함께 보냈던 주변 인물, 승려, 가족 구성원인 아내, 자녀, 나아가 첩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게 된다. 주변 인물의 경우 신분이 잘 알려진 대상이 출현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며, 작가가 개인 문집에 망자의 이름을 별도로 표기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인물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다수가 친소 여부에 근거한 창작으로, 낮은 신분이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인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은 왕족을 제외하면 본명 대신 성(姓)만 명시되거나 아내의 경우 도망(悼亡)의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남송 작품 일부에는 해당 여성의 신분 정보를 별도의 주(注)를 통해 밝히는 사례도 발견된다.⁸⁾

아래의 <표 2>는 애도 대상이 분명한 작품 수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애도 대상이 분명한 작품 수 현황

작가	작품 총수	애도 대상이 분명한 작품 수 ⁹⁾
呂本中(1084~1166)	10	3
曾 幾(1084~1166)	16	9
王十朋(1112~1171)	61	16
韓元吉(1118~1187)	45	15
周必大(1126~1204)	52	21
喻良能(1120~ ?)	21	7
周 孚(1135~1177)	16	1

- 8) 한 예로 누약(樓鑰)은 「<宜人楊氏挽詞>의 주에 “정화문의 아내이다.(鄭華文之室)”라는 주를 첨부했으며, 「<王夫人挽詞>에서도 “주자급의 아내이지만, 주자급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周子及之室, 周子及, 不分明.)”라는 주를 통해 신분 정보를 전하고 있다.
- 9) 현전하는 자료를 통해 애도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의 신분 정보가 전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특정한 권한을 지녔던 인물이거나, 이에 일조하여 정사에 참여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역사서에 언급되어 그 행적을 알 수 있는 인물들이 중심이 된다.

작가	작품 총수	애도 대상이 분명한 작품 수
呂祖謙(1137~1181)	27	6
樓鑰(1137~1213)	172	123
劉宰(1167~1240)	52	6
魏了翁(1178~1237)	115	11
劉克庄(1187~1269)	215	44
총 802수		162수(전체 32%)

현전 자료의 한계로 정확한 신분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전체 32%를 제외한 대다수 망자의 신분이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는 남송 애도시의 시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 상당수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평범한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시적 대상의 불분명성은 애도를 통한 슬픔 공유가 보편화했던 당시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공익의 목적 아래 특정 인물군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애도 글쓰기가 자율적인 슬픔 공유 문화의 조성을 저해했다면, 누구나 애도 대상으로 언급되는 상반된 모습은 결국 남송에 이르러 애도 주제가 단일화의 방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슬픔 공유가 가능한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징했다.

남송에는 대리창작이 또 다른 애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기존에도 ‘和~’¹⁰⁾ 등의 시제를 통해 화시(和詩)를 통한 애도나 대리창작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남송에도 이어져 대리창작 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는데, 타인의 부모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청탁에 의한 애도 글쓰기는 주로 비문(碑文) 또는 제문(祭文)의 양식을 활용하여 창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송 작품에 보이는 ‘代人(代作)~挽詞’ 등의 형식으로 창작된 애도시와 애제류 산문 간의 변별점을 논하자면 시제와

10) 한 예로 당대(唐代) 백거이(白居易)의 〈和元九悼往〉, 북송 구양발(歐陽發)의 〈歐陽伯和仲純挽詞〉二首 등을 들 수 있다.

내용에 망자의 신분이 상세히 기술된 작품도 존재하지만, 주부(周孚)의 〈代作高氏令人挽詞〉二首처럼 시적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하며, 내용 구성도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징후는 남송 애도시의 대리창작이 엄격한 규범을 추구하고 특수한 목적 아래 창작되었던 애제류 산문과 구분되며, 슬픔 공유가 보편화되었던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를 엄두에 두고 대리창작으로 이루어진 몇몇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창작 실태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주부(周孚)의 〈代作高氏令人挽詞〉二首 중 其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自愧十年舊	10년의 오랜 시간 동안
飽聞林下風	고상한 풍치 소리 들은 것 스스로 부끄러워하셨네.
嬪夫冀缺敬	아내는 남편을 기결(箕缺)처럼 공경했고,
教子范滂忠	자식을 범방(范滂)처럼 충직하게 가르쳤네.
遺跡風驚燭	남긴 흔적 바라보니 바람이 촛불을 놀래키는 듯했고,
芳名月滿空	향기로운 명성은 달이 허공을 가득 채운 듯했네.
憑誰相蒿挽	누구에게 기대 만가를 써야하나
第入召南中	차례로 소남에 들어갔다네. ¹¹⁾

작가는 其一에서 망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먼저 서술했으며, 예시한 작품은 생전 아내의 행적을 칭송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연작을 통해 슬픔을 선행하고 칭송을 후행하는 구조 및 망자의 행적을 칭송 중심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전대의 애도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타인에 의한 대리 창작물이라는 점에 착안할 때 슬픔을 공유하는 행위가 보편화되었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다시 아래에서 여조겸(呂祖謙)의 〈何茂恭母王夫人挽章〉의 전문을 살펴보자.

11) 周孚, 〈代作高氏令人挽詞〉二首,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8805쪽.

南朝人物盛諸何	남조의 인물 그 얼마나 많았던가?
壽母皤然樂事多	백발 모친 장수하시어 즐거움도 많았네.
堂下無憂萱弄色	집에 근심 없으면 망우초 색 질게 드리워졌고,
天邊有信桂交柯	하늘 가에 소식이 있어 계수나무 가지 서로 얽히고,
黃金籊滿經方重	황금 꿩에 소중한 의학 서적 가득하고,
白玉樓成恨未磨	백옥루 완성되었지만 아쉬움은 갈아낼 수 없네.
空誦安仁舊時賦	허망하게 반약의 옛 노래만 되뇌일 뿐,
版輿零落故山阿	수레만 덩그러니 고향 산골짜기에 남아있네. ¹²⁾

하각(何格, 1128~1178)의 모친이 사망한 것을 애도한 작품이다. 타인의 죽음을 대신 애도하므로 과도한 슬픔을 표출하는 대신 ‘반약’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끌어오거나 ‘수레’가 홀로 놓여있는 쓸쓸한 정조를 조성하여 애도자가 체감하는 슬픔을 간접화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부(周孚)의 〈代人作孫尚書挽詞〉二首 등처럼 주변 인물의 죽음을 대신 애도한 사례도 전해지므로, 대리창작 대상이 특정 인물로 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리창작의 증가는 애도 방식의 다양화에 일조했음을 의미하며, 슬픔 공유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남송의 한 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애도 주제 활용의 변화상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III. 감정 대응의 다양화

슬픔 공유의 일상화가 애도의 접근과 그에 수반된 글쓰기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무분별적 감정 대응의 확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남송 문인들은 기존과 다른 변화된 애도의 관점을 충분히 인지하되 애도 대상의 신분에 따라 선별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12) 呂祖謙, 〈何茂恭母王夫人挽章〉,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9146쪽.

그런데 시적 대상별로 감정을 다루는 내용과 표현이 다르게 구성되는 현상은 문학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글쓰기 특징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를 남송 애도시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를 문학 보편의 기술 방식이라는 거시적 관점이 아닌 애도 주제 변천의 일단을 고증하려 할 때 변화 또는 다양화 추세를 포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중요도를 갖게 된다.

애도 주제의 글쓰기는 오랜 창작 역사를 지녔지만, 의례의 목적 아래 주관적인 감정 개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공적 인물의 행적을 재현하는 데 초점이 놓였다. 슬픔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주조로 하되 관습의 명목으로 자율적인 감정 표출이 제한되었던 특수성이 초기의 애도 글쓰기를 대변한다면, 남송에 다양화하기 시작한 감정 대응 양상은 애도 주제 활용의 변화된 일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감정 대응 방식의 다양화가 남송 애도시의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唐代)에 시도되었던 애도 대상의 확장은 애도 주제가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감정 대응 방식과 그와 관련한 문학 이론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일례로 위응물(韋應物, 737~791), 백거이(白居易, 772~846), 원진(元稹, 779~831) 등은 애도시를 창작하며 인명 상실을 대면한 슬픔을 공표했는데, 그중 백거이는 자신의 문학 이론의 하나인 ‘수감우(隨感遇)’와 ‘직(直)’의 용어로써 직설화법을 통한 감정 대응 방식을 애도의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당대는 애도 대상의 확장 범위가 제한적이며,¹³⁾ 감정 대응 방식의 체계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 창작의 자율성은 보장되었지만, 대상에 따른 선별적인 감정 대응 방식이 아

13) 당대(唐代) 애도시의 시적 대상은 기존에 언급되지 못했던 아내 등이 공개적인 시적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분명한 확장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당시 높은 사회적 위치에 놓였거나 문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의 아내로 한정된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시적 대상으로 언급되는 주변 인물도 중심부 문인이 대부분이다. 이는 애도 주제가 여전히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존재했던 사실을 말해준다.

직 정착되지 않았다.

그와 달리 남송에는 일상 인물을 중심으로 애도시가 창작됐으며 무엇보다 여성의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왕족을 제외한 중심부 문인의 아내로 한정됐던 당대(唐代)와 달리, 남송은 정실인 아내를 비롯하여 첩 등을 포함한 인물을 ‘유인(孀人)’, ‘부인(夫人)’ 등의 시어로 시제에 직접 제시한다. 실제로 남송 애도시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약 10%를 차지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 제약이 많았던 기존의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시적 대상의 다양화는 일상과 주변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의 사람들도 애도 주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레 다양한 감정 대응을 발현 가능케 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했듯 애도 주제의 보편화와 시적 대상의 확장이 진일보한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남송 문인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감정에 대응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애도 대상의 다양화로 기존 애도 주제에 부여된 엄격한 기준, 이를테면 칭송과 비애의 순차 서술 또는 모범적 행적 중심의 서술 등의 효력은 확연히 약화했지만, 시제(詩題)의 구성, 감정 시어의 활용 빈도, 서술 구도 등의 구성에서는 여전히 대상별로 차이를 보인다. 공적인 관계로 맺어진 인물, 사적인 관계에 놓인 인물, 아내 또는 첩, 자녀 등이 작가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세분되어 개별 특징을 지닌 채 서술된다.

따라서 다양화한 감정 대응 방식은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을 애도한 각각의 작품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먼저 공적 인물¹⁴⁾을 애도한 작품을 살펴보자.

아래의 작품은 증기(曾幾)의 〈挽李泰發參政〉三首 중 其一이다.

公昔遭前政 그대 예전 전대의 치적 마주했을 때,

14) 이때 공적 인물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영위했거나 인지도가 있는 대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역사 인물이 중심이 된다.

忠精不少衰	충정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네.
立談廷爭地	조정 의논에서도 당당히 말씀하시고,
上疏里居時	고향에 내려가서도 상소문을 올렸네.
意氣南山在	그 기백 남산처럼 굳건히 자리하고,
名聲北斗垂	그 명성 북두성처럼 높이 드리우네.
心知不亡者	그 마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送往得無悲	이제 떠나보냄이 슬프지 않다고는 할 수 없네. ¹⁵⁾

이는 이광(李光, 1078~1159)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이다. 이광은 남송을 대표하는 명신(名臣)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련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에서 생전 행적을 칭송하는 ‘榮始而哀終’의 서사 구조를 보인다. “잊히지 않는” 망자의 과거 행적이 애도자의 슬픔을 일으킨 전제이자 창작 동인으로 제시되며, 미련에서 “보내드림에 슬픔이 없을 수 있으리.”라는 구절이 대변하듯 감정의 과도한 표출을 자제하려는 방향에 따라 감정 시어의 활용이 최소화되어 나타난다.

한원길(韓元吉)의 <故端明尚書汪公挽詞> 二首 중 其一을 보자.

未冠登華選	성인이 되기 전 관직에 올라,
高文動漢廷	훌륭한 문장으로 조정을 감동시켰네.
持身嚴渠席	몸가짐은 규율처럼 엄정하고,
慮世炳丹青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은 단청처럼 선명했네.
庶府咨沿革	백관들이 제도의 변화를 그에게 자문하고,
諸儒見典型	유학자들이 그를 전형으로 삼았다네.
空嗟廊廟略	다만 아쉬운 것은 조정의 큰일을 맡지 못하고,
不上鼎彝銘	그 공적을 술과 제기에 새기지 못한 일이라네. ¹⁶⁾

왕응진(汪應辰, 1118~1176)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앞서 예시했던 증

15) 曾幾, <挽李泰發參政>三首,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18543쪽.

16) 韓元吉, <故端明尚書汪公挽詞>二首,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3644쪽.

기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미련을 제외한 전체가 과거 행적을 재현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미련에서 “空嗟”의 시어를 통해 감정을 표출한다. 같은 작품 其二에서는 전반부에 행적이 칭송되고 후반부에서 비애가 서술되는데, “떠나심은 아! 하늘의 명이란 말인가. 나라를 일구신 그 공을 과연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랴. 형제들 예수를 넘기지 못하고, 병으로 쓰러지시니 참으로 안타깝구나.(逝矣嗟天命, 誰歟總國成. 弟兄無六十, 殄瘁亦堪驚.)”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 其一에 비해 더 직접적인 슬픔 대응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작품 전체의 초점이 여전히 행적을 선양하는 데 놓여있으며, “嗟天命” 등처럼 최소한의 감정 시어를 활용하는 등 절제된 감정 전달 양상을 띤다.

아래의 작품은 왕십봉(王十朋)의 〈亡友孫子尚, 槁葬會稽山大禹寺之側, 某至官八日, 出郊訪, 其墓不獲, 明年春, 被命祀禹, 訪而得之, 又明年春, 再往酌酒, 因植柏十根, 哭之以詩.〉이다.

疇昔相知似弟兄	예전 우리는 형제처럼 가까웠는데,
那知半世死生分	세월이 흘러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줄이야.
無緣更飲盃中物	더는 함께 술잔을 기울일 인연 없으리니,
想見能修地下文	그대는 지하에서 문장을 잘 정리하고 있겠지.
有愧乘車葬元伯	수레 타고 원백을 장사 지낼 때보다 참괴하고,
僅同解劍弔徐君	검을 풀고 서군(徐君)을 조문하던 때만큼 참괴하도다.
他年黛色參天處	언젠가 검은 하늘에 닿을 때,
是子會稽山下墳	그대는 바로 그 회계산 아래에 묻혀 있겠구나. ¹⁷⁾

위 작품의 주(注)에는 “손자상은 왕십봉의 절친한 친구로 젊은 나이에 소흥에서 객사하였다.(孫子尚, 十朋摯友, 壯年客死紹興.)”라 되어 있다. 망자의 신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해지지 않으나 제시된 주를 통해

17) 王十朋, 〈亡友孫子尚槁葬會稽山大禹寺之側某至官八日出郊訪其墓不獲明年春被命祀禹訪而得之又明年春再往酌酒因植柏十根哭之以詩〉,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2594쪽.

작가와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놓였던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공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작품과 달리, 내용의 초점이 슬픔의 감정 재현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감정 시어를 반복 활용하는 대신 시체에 “또 다음 해 봄이 다시 찾아와 술 따르며 측백나무 열 그루를 심었기에 시로써 곡을 하다.(明年春再往酌酒, 因植柏十根, 哭之以詩.)”라는 비교적 긴 구절로 작시 동기를 우선하는 독특한 감정 대응 방식을 보인다. 작가는 그 밖에도 〈子尚墓種柏〉¹⁸⁾을 통해 손자상의 죽음을 애도한 시 한 수를 더 남겼다.

유사한 사례로 누약(樓鑰)은 〈張欽州挽詞〉에서 장주지(張舟之)라는 인물을 애도했다. 그는 “평소에 나를 깊이 생각해주었는데 만년에 차마 그대의 명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平時深念我, 晚歲忍銘公.)”라는 구절을 통해 평소의 친분이 작시 동인이 되고 있음을 언급했으며, “서풍을 향해 눈물 흘리네.(灑涕向西風)”의 구절을 통해 더 적극적인 감정 대응을 보인다. 위료옹(魏了翁)도 〈成都杜五一府君之葬, 某新有喪, 不得爲文, 以侑虞殯命兒冲代賦〉에서 시체에 작시 동기를 밝혔으며, 수련에서 “유천에서의 죽음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그대의 죽음에 곡하는구나.(尚記維川死, 今年又哭公.)”라는 구절을 배치함으로써 비애를 우선 서술한다.

다음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애도시는 남송의 다양화된 감정 대응 방식이 더 분명히 확인되는 면에서 주목된다. 규범화한 인물상을 재현하며 가족을 애도하는데 집중되었던 기존과 달리 사망 날짜가 명시되거나 슬픔이 유발된 원인을 시체에 직접 서술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애도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살펴보자.

아래의 작품은 왕십봉의 〈令人生日哭以小詩〉二首 중 其二이다.

去歲一杯酒 지난해 한 잔 술로,
遽然生死分 갑자기 생과 사가 나뉘어 버렸네.

18)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자상은 곧 저와 같은데, 장년의 나이에 무덤 이미 황폐해졌네. 내가 와서 직접 측백나무를 심나니, 눈물 머금고 울창해지길 기다리네.(子尚乃如許, 壯年墳已荒. 我來親種柏, 含淚待蒼蒼.)”

兒孫爲壽地 자식들 무덤에 임해
 慟哭不堪聞 통곡하는 소리, 차마 들을 수 없구나.¹⁹⁾

작가는 작품의 주(注)에 “이십칠일(二十七日)”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였다. 시제를 통해 죽은 아내의 생일날 유발된 슬픔이 창작 동인이 되고 있음을 명시했으며, “哭”에 대응하여 그 내용도 비애가 중심이 된다. 왕십봉은 위 작품 외에도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연작시를 5수 이상 창작했는데²⁰⁾ 생전 아내의 성품을 언급한 사례도 전해지지만²¹⁾ 내용 대부분이 강한 비애의 정조를 서술하여 사적인 감정을 다방면으로 표출하는 데 집중된다.

다시 주필대(周必大)의 〈悼亡之後, 病齒不能食, 拔去其甚者, 有感賦小詩〉를 살펴보자.

咀嚼勞劬八十年 음식 씹는 일에 힘들인 지 80년,
 更因缺落拔其殘 한쪽 이 빠져 나머지도 뽑아버렸네.
 已無韓愈妻堪詫 한유의 아내처럼 이 없음을 자랑할만한 아내 없으니,
 只欠張蒼乳可餐 단지 부족하더라도 장창이 먹었다는 젖이라도 밥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네.²²⁾

왕십봉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위 작품의 주에도 “계해년 십일월(癸亥十一月)”이라는 구체적인 창작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작시 동기가 시제에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작품 전반부에서 치통으로 밥을 먹지 못하여 이를 뽑은 상황이 재현되며 후반부에서 한유와 장창의 전고를 통해 홀로 남겨진 처량한 신세를 강조한다. 슬픔을 직접 화법을 통해 전달하는 대신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비애의 정조를 부각한다.

19) 王十朋, 〈令人生日哭以小詩〉二首,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2934쪽.

20) 〈哭令人〉, 〈悼亡〉四首, 〈悼亡〉二首, 〈挽令人〉三首 등이 전해진다.

21) 〈挽令人〉에는 “어디서나 어려움 함께했고, 변변치 않은 음식도 함께 달다 여겼지.(水陸同艱險, 糟糠共苦甘.)”라는 구절로써 아내의 어진 인품을 칭송한다.

22) 周必大, 〈悼亡之後病齒不能食拔去其甚者有感賦小詩〉,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6798쪽.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정 시어를 중심으로 슬픔이 서술되는 감정 대응 방식이 두드러진다. 아래에서 왕십봉의 〈家童拾栗, 因念亡兒, 作數語以寫鍾情之悲〉를 살펴보자.

去年覓栗嫌汝癡	작년 밤 찾던 너의 아둔함을 미워하였고,
責汝曾賦淵明詩	너를 책망하며 일찍이 도연명처럼 시를 지었지.
今年栗熟不汝見	올해 밤 익었는데 네가 보이지 않는데,
淒然白骨埋荒陂	쓸쓸히 백골을 황량한 방죽에 묻었네.
西風簌簌黃葉飛	서풍 불어오자 누런 이파리 날리고,
家僮拾栗門前歸	일하는 아이 밤 주워오니 문 앞에서 다투어 가지러 고 하네.
汝兄汝妹爭來取	네 형과 누이 서로 갖고자 하는데,
汝父傷心淚如雨	네 아버지는 슬픈 마음에 비 오듯 눈물 흐르는구나. ²³⁾

가동(家童)이 밤 줍는 모습을 본 계기로 과거가 회상되며 이는 다시 “네 아버지는 슬픈 마음에 비 오듯 눈물 흐르는” 모습으로 귀결된다. 과거의 특정 시점이 슬픔을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양상은 자녀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에서 특히 자주 보이며, 그에 따른 감정 시어의 활용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 동시대 주필대(周必大) 역시 〈九日哭子柔弟〉에서 “가슴 아파 괴로이 눈물만 흐르는구나.(心酸苦淚零)”라는 구절을 통해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강도 높게 표출하고 있어 상호 유사성을 보인다.

이상에서 애도 대상에 따른 감정 대응 양상을 작품의 예시를 통해 살펴 보았다. 망자의 신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감정 대응 방식은 문학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남송은 애도 주제 활용의 전체 발전 과정에서 감정 대응 방식의 다양화가 가장 활발히 시도된 시점으로서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응 양상은 관습과 계승의 영역을 넘어 작가의 의식적인 설계 아래 조직된 행위로서 당시 문인들

23) 王十朋, 〈家童拾栗因念亡兒作數語以寫鍾情之悲〉,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2628쪽.

이 변화의 진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음을 방증한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IV. 관습의 재구성(再構成)

애도 주제 글쓰기와 관습 문학 간의 긴밀성은 줄곧 양자를 동일 범주 내에 포함하도록 만들었다. 의례의 실천으로 파생된 관련 규범의 체계화는 육기(陸機, 261~303)의 <문부(文賦)>, 유협(劉勰, 465~521)의 <<문심조룡(文心雕龍)>> 등 애도 문체의 이상적 대안을 제시한 문체론저(文體論著)의 출현을 앞당기는 한편 획일화한 내용을 규범에 따라 서술하면서 글의 독자적 가치보단 실용의 측면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뇌문을 기점으로 등장한 비문(碑文), 제문(祭文) 등 애제류 산문은 장례 절차의 한 부분으로 전제된 창작물이며, 초기에는 작자의 신분도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애도 주제의 글쓰기는 관습적이며 문학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라는 인식은 나름의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문학 발전에 따른 애도 글쓰기의 인식 변화는 관습의 큰 틀 아래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애도 대상의 확장과 더불어 칭송과 비애의 비중을 조절하는 문장 규율의 의식적인 도치 사례 등이 그 근거가 된다.

애도시는 특정한 규범의 부재로 창작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관습과의 유착으로 인한 고정된 애도 관념은 공적의 선양을 위시한 행적 재현에 집중되면서 칭송이 주된 서술 비중을 차지하였다. 물론 당대(唐代)를 기점으로 서정 중심의 글쓰기가 제창되지만, 칭송은 관습의 표상으로 거의 모든 시대에서 애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애도시 창작에 있어 관습의 여러 요소 중 유독 칭송의 서술 비중이 주목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칭송’ 자체에 부여한 특별한 의미와 더불어, 시본연이 지닌 편폭의 제한과 만가시(挽歌詩)와의 형식적 유사성에서 비롯되

었을 가능성도 있다. 지속된 칭송의 서술이 인간 보편의 애도 방식으로 망자의 생전 가치를 보증하는 기준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칭송할 것인지의 제 문제는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컨대 유가 이념이 강하게 실천되었던 사회에서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통적인 여성상에 기반한 아내의 행적이 칭송의 어조로 재현되기도 하며, 다수에 의해 칭송되었던 인물을 유가의 관점에 따라 재해석하기도 한다. 이때 칭송된 내용은 애도 주체인 작가의 슬픔이 유발된 전제이자 작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복송 애도시는 관습에 기반한 애도 재현을 추구하면서 칭송과 비애의 순차 서술에 유독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기존 관습을 계승하여 글쓰기 초점을 행적 선양에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송 애도시의 시적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상당수가 공적인 인물로 한정된다는 상황이 바탕이 된다.

그와 달리 남송은 죽음 담론의 본격화에 따른 슬픔의 공유 문화가 조성되고, 시적 대상의 확대에 따른 감정의 대응 방식이 다양화하자 기존과는 다른 애도 방식이 시도되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관습에 기반한 창작물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해당 비중이 확연히 줄었으며 칭송과 비애의 서술 구도에 변화를 주는 등 애도 글쓰기의 관습적 특징을 재구성한 사례도 전해진다.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서 먼저 관습의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칭송과 비애의 순차 서술 비중을 남송 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자.

〈표 3〉 칭송과 비애의 순차 서술 빈도

작가	칭송+비애 순차 서술 비중 ²⁴⁾
曾 幾(1084~1166)	42%

24) 〈표 3〉에 제시된 수치는 본 연구자가 별도로 선별한 대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다. 따라서 전체 작품 수가 10수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남송 애도시의 애도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는 기존과는 다른 남

작가	칭송+비애 순차 서술 비중
王十朋(1112~1171)	10%
韓元吉(1118~1187)	50%
周必大(1126~1204)	55%
喻良能(1120~ ?)	95%
周 孚(1135~1177)	66%
呂祖謙(1137~1181)	25%
樓 鑰(1137~1213)	61%
劉 宰(1167~1240)	50%
魏了翁(1178~1237)	50%
劉克庄(1187~1269)	20%

북송의 애도시가 칭송과 비애의 순차 서술 비중에서 74%의 평균값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남송은 절반 이하인 47%의 평균치를 보인다. 도출된 결과값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관습의 약화이다. ‘榮始而哀終’의 서술 구도는 시에서 줄곧 관습의 요소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관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율성에 따른 애도의 장을 구체화하려는 당인들의 의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애도 관념의 변화를 의미한다. 시를 통한 애도 글쓰기의 창작 증가는 애도 행위가 관습 및 실용과의 양극화에 가담함을 나타낸다. 애도는 더 이상 공적인 소유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일상에서 흔히 공유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습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주로 다음의 방식을 통해 재현된다. 첫째, 칭송보다 비애의 비중이 크거나 우선 서술된다. 둘째, 칭송의 내용이 서술되지

송의 변별되는 특징으로 상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 분명한 작품과 불분명한 작품을 모두 포함하여 수치를 도출하였다. 작품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칭송과 비애가 순차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둘째, 연작시의 경우 칭송과 비애가 연작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않는다. 셋째, 애도자와의 사적인 추억이 슬픔 유발의 전제로 제시된다.
먼저 왕십봉의 〈哭純老〉를 살펴보자.

忽得潛澗書	홀연 깊은 산속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驚聞壽山死	뜻밖에 수산이 죽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네.
開書未終讀	편지 개봉하여 아직 끝까지 읽지 못했는데,
老淚灑盈紙	늙은이의 눈물로 편지를 다 적서 버렸네.
壽山僧中傑	수산은 승려 중 가장 뛰어나셨으니,
蕭灑如晉人	소탈함이 진인(晉人)과도 같으셨지.
識高行孤潔	지식은 해박하고 행위는 고결했으며,
何無一點塵	가슴 속에는 티끌 하나 없으셨네.
少年走江湖	젊었을 적에는 강호서 노닐었으나,
叢林參大士	사찰에서는 큰 스님으로 계셨었네.
莫年住甌閩	만년엔 구민(甌閩)에 거하셨는데,
道價高遠邇	승려의 명망 높고도 요원했다네.
桑下不留戀	세상의 욕망에 미련 남기지 않으셨고,
急流猛抽身	복잡한 세상에서 급히 몸을 빼셨네.
我欲掛衣冠	나도 관직에서 벗어나,
歸歟遠公親	돌아가 원공과 가까이 있고 싶구나.
遽聞新塔成	뜻밖에 새로운 탑 완성되었다 들었더니,
已葬堅固子	벌써 견고한 곳에 묻히고 마셨구나.
無由訪圓澤	이제는 스님을 찾아갈 길 없어,
空對瞿唐水	그저 허망하게 구당(瞿唐)의 강물만 바라보네. ²⁵⁾

예시한 작품에 함께 제시된 “永嘉僧”의 주를 통해 스님을 애도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장편으로 구성된 위 작품은 비애와 칭송이 함께 서술되는데, 전반부에서 부고 소식을 들은 후의 반응을 슬픔의 어조로 서술한 후 과거 행적을 회상하고 후반에서 다시 슬픔을 표출하는 구조를 보인다. “소탈했던” 망자의 모습과 대응하여 절제된 시어로 행적이 재서술되는 반면

25) 王十朋, 〈哭純老〉,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9146쪽.

시제의 “哭” 자(字)가 대변하듯 “늙은이 눈물로 종이를 다 적서 버렸다.”라는 구절을 전면에 배치하여 비애의 감정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 다시 여조겸(呂祖謙)의 〈王龜齡詹事挽章〉二首 중 其一을 보자.

諸老收聲盡	노인들 우는 소리 막 그만됐는데,
佳城又到公	무덤이 다시 그대에게 이르렀네.
蒼天那可問	아득한 푸른 하늘 어디에 물어볼 수 있느냐.
吾道竟成窮	내 길은 끝내 궁하게 되었네.
旌卷莆田雨	깃발을 말자 보전에 비가 내리고,
簫橫雪浦風	통소 소리 나자 삽포에 비바람이 이네.
今年襟上淚	올해 옷깃에 흘린 눈물은,
三哭萬夫雄	장부의 웅지 지닌 그대에게 세 번 곡했기 때문이라네. ²⁶⁾

왕십봉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었던 인물을 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과거의 행적이 칭송되었던 기존과 달리 비애의 정조와 강한 슬픔이 내용의 중심을 이룬다. 망자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전반부에 제시되고 장례 행렬과 그로 인한 감정 발현이 후행하는 구조를 보인다. 2연작으로 된 위 작품은 其二에서도 “큰기러기의 날갯짓 새로워지고, 훌륭한 명성 북두성과 견우성에서 오래 전해질 것이네.(羽翼新鴻鶴, 聲華舊斗牛.)”의 두 구를 제외하면 비애를 서술하는 데 집중된다. 연작시 전체가 칭송보다 비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주필대(周必大)의 〈龍圖閣直學士吳明可挽詞〉二首 중 其二와 위료옹(魏了翁)의 〈陳寺丞挽詩〉二首 중 其二是 전체가 비애를 서술하는 데 집중되며, 주부(周孚)의 〈代人作孫尚書挽詞〉二首는 전체 연작시가 칭송과 비애를 함께 서술하되 비애의 표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전개된다.

다시 유극장(劉克莊)의 〈挽方岳倅〉를 보자.

26) 呂祖謙, 〈王龜齡詹事挽章〉二首,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9142쪽.

昨解巴陵紱	어제 파릉의 인끈 풀었는데,
將尋洛社盟	장차 낙사의 모임을 찾았구나.
壁埋真可惜	구슬 같은 그대 묻힌 것 정말 애석하구나,
玉立尚如生	절개 고상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듯하네.
舊轍冰天遠	옛길 매서운 추위와 멀어지고,
新塋雪瀨清	새로 만든 무덤가 눈 내린 못 맑네.
惟應帶來鶴	단지 데려온 학의 소리에 응해서,
解作斷腸聲	애가 끊는 소리만 낼 수 있으리. ²⁷⁾

방악(方岳, 1199~1262)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단편으로 구성된 위 작품은 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이 죽음을 수용하기 힘든 심적 상황과 적막한 무덤 정경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창자 끊긴 소리 그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구절은 죽음을 대면한 애도자의 강한 비애감을 직관적으로 나타낸 부분으로, 작시 동기가 슬픔 표출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유극장은 위 작품 외에도 원추(袁樞, 1131~1205)의 죽음을 애도한 〈挽袁侍郎〉二首의 연작시 첫머리에 각각 “흰머리로 우연히 서로 만났는데, 어찌 길이 다르게 되었는가.(華髮始遭逢, 其如道不同.)”, “유언과 부고, 동시에 가난한 집에 이르렀네.(遺誥兼新訃, 同時至藁門.)”의 구절처럼 슬픔을 우선 서술하며, 육유(陸遊, 1125~1210)의 죽음을 애도한 〈挽南雄林使君〉에서도 “뜻밖에도 만가의 방울 소리 들려오네.(居然鳴挽鐸)” 등 비애를 표현하는 시구를 전면에 배치하는 감정 중심적 특징을 보인다.

애도자와의 추억이 슬픔의 전제로 제시되는 사례는 누약(樓鑰)의 〈張欽州挽詞〉三首 중 其三을 참고할 수 있다.

姻好自諸馮	제풍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
東床取阿戎	사위로 그대 아들 만났지.
平時深念我	평소에 나를 깊이 생각해주었는데,
晚歲忍銘公	만년에 그대의 명을 쓰게 되었구나.

27) 劉克莊, 〈挽方岳倅〉,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36260쪽.

書字今猶濕	적어주신 글씨 여전히 눅눅한데,
心期誰與同	마음속 기약 누구와 함께하리.
回頭三十載	고개 돌려 지난 30년을 생각해보며,
灑涕向西風	서풍을 향해 눈물 흘리네. ²⁸⁾

“평소에 나를 깊이 생각해주었는데, 만년에 그대의 명을 쓰게 되었다.”의 구절을 통해 과거를 공유했던 추억이 슬픔이 유발되는 전제로 제시되며, 이는 다시 미련에서 재차 “고개 돌리면 30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강조된다. 그밖에 유재(劉宰)도 <挽葉水心侍郎> 三首 중其三에서 “옛날에 만났던 것처럼 서로 깜빡하기도 하고, 한 번 웃으며 따뜻한 봄 오길 기다리네.(相忘如舊識, 一笑等春溫.)”라는 구절로써 추억회상이 슬픔 유발의 전제로 이어지는 문장 구조를 보인다.

이상 예시한 작품들이 관습의 재구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예시될 수 있는 것은 언급된 인물 상당수가 사회적 특권을 부여받았던 중심부 문인에 속함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문인 애도의 일환으로 칭송과 비애의 순차 서술에 의존했던 북송과 달리 주관적 감정을 우선시하는 남송 애도시는 칭송의 서술 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애도 글쓰기의 일상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남송 애도시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애도의 주제가 변화의 전진 과정에 놓여있다는 전제 아래 그 변천의 일면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남송 애도시의 애도 주제 활용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슬픔 공유의 보편화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창작이 중심이

28) 樓鑰, <張欽州挽詞>三首,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29514쪽.

되었던 북송과 달리, 남송은 사적인 관계에 놓인 주변 인물과 가족이 출현하면서 시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상당의 신분이 불분명한 특징을 보인다. 신분의 불분명성은 애도 주제가 남송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던 사실을 반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슬픔의 보편화에 따른 시적 대상의 증가는 대리창작을 통해 타인을 애도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둘째, 감정 대응의 다양화이다. 남송은 애도 대상의 확장과 함께 슬픔에 대응하는 여러 방식이 가장 세분화한 시점이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에 놓인 인물에 따라 선별적으로 감정에 대응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실용 중심적이었던 애도 글쓰기 주제가 남송 애도시에 이르러 작가의 주관적 견해 아래 놓이게 되는 변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셋째, 관습의 재구성이다. 행적의 칭송이 줄곧 애도 주제의 관습을 대표해왔듯 남송의 작품에도 여전히 계승되는 측면이 남아 있지만, 남송 문인들은 이를 의식적으로 재구성하여 칭송과 비애의 비중을 조절하는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남송 애도시의 애도 주제 활용 양상은 3,000수가 넘는 방대한 양의 작품 수가 증명하듯 누구나 애도의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었던 사회상이 주요 바탕이 된다. 무엇보다 애도 주제가 슬픔의 주관적 표출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남송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랜 세월 의례의 목적 아래 놓였던 애도 주제가 인간 보편의 감정인 슬픔 표출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변화의 주도에 앞장섰던 남송 문인들의 주체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남송 애도시의 애도 주제 활용 양상을 살피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분량이 방대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남송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애도 주제 글쓰기의 변화상을 증명하는 실증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더 확장된 주제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김성수, 《南宋 初期 詩壇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유협(성기욱 역), 《문심조룡(文心雕龍)》,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 이수정, 〈사교시를 통한 당대 문인들의 슬픔 공유에 대한 고찰 -白居易, 劉禹錫, 元稹의 작품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제79집, 2022.
- 이수정, 〈애도 주제의 활용 양상과 그 변천 소고 -北宋 哀悼詩를 중심으로〉, 《中國學》 제88집, 2024.
- 이치수, 〈北宋 後期에서 南宋 初에 이르는 詩壇의 變化: 陳師道와 陳與義의 比較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제9집, 1995.
- 傅璇琮, 《全宋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1998.
- 李博, 《蘇軾哀祭文研究》,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23.
- 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 胡旭, 《悼亡詩史》, 上海: 東方出版中心, 2010.

<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mourning themes in Southern Song dynasty's mourning poems and their changes.

The results caus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thern Song dynasty's mourning po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phase is that the culture of grief sharing was widespread. Unlike the case of Northern Song dynasty centering on collective creation, general people and their families began to appear as the subjects of mourning literature of Southern Song dynasty. The widespread feeling of sadness has also created a culture of mourning for the others through vicarious

creation. The second phase is the diversity of the ways responding to human emotions. The Southern Song dynasty was the period shown the expansion of the mourning subjects and the segmentation in the ways of responding to grief. Thus, different emotional responses have been shown, according to public or private relationship among people. However, this trend of mourning themes centered on practicality handed over to the author's subjective view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third phase is the reconstructing of customs. Although the tendency praising the others' admirable deeds was consistent, a progressive trend combining both of praising and sadness began to appear in Southern Song dynasty.

In conclusion, Southern Song's mourning poems demonstrate the aspects of diversity and variety in utilizing mourning themes. This is an important case that has shown a drastic change in mourning poems, while leading to the necessity for follow-up research.

Key Words : 남송(Southern Song Dynasty's), 애도(Mourning), 애도시
(Mourning poem), 공유(Share), 감정 대응(Emotional
response), 재구성(Reconstruction)